

다시 보고 싶은 명화 스크린으로 만날 기회

20~31일 개관 82주년 광주극장 영화제

1920년대 고전·미개봉작 상영
관객 14명 참여 손간판 상판식
31일 프랑스 재즈 트리오 공연

광주극장이 개관 82주년을 맞아 20일부터 31일까지 '개관 82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연다.

광주극장은 1935년 10월 개관한 이래 2014년부터 매년 10월 영화제를 열고 있다.

광주극장 영화제는 한 감독의 작품 또는 영화사조를 집중 조명하기보다는 스크린을 통해 다시 보고 싶은 고전의 변역에 오른 영화와 현역에서 활동중인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아직 국내에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로 꾸며진다.

20일 영화제 개막작으로는 무성영화 시기의 작가 버스터 키튼의 최고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스티븐트 빌 주니어'(1928)가 디지털 복원판으로 상영된다.

존 포드 감독의 '젊은 날의 링컨'(1939), 말론 브란도의 여성적 매력이 돋보이는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1951·엘리아 카잔), 지난 7월에 타계한 여배우 잔느 모로의 대표작 '출 앤 짐'(1962·프랑수와 트뤼포)를 비롯해 루치노 비스콘티의 '센소'(1954), 가을이면 항상 떠오르는 에릭 로메르의 '가을 이야기'(1998)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작가 마이클 만과 구스 반 산트의 초기 대표작 '도둑'(1981), '아이다호'(1991)가 상영될 예정이다.

'아임 낫 데어'(2007), '벨벳 골드마인'(1998), '윈스'(2006) 세 편의 음악영화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연인이 그려내는 모던 러브스토리, 안톤 엘친 주연의 '포르토'(2016), 니콜라스 홀트 주연 '뉴니스'(2017)와 브루노 뒤몽의 신비스럽고 충격적인 코미디로 줄리엣 비노쉬가 주연한 '슬랙 베이: 바닷가 마을의 비밀'(2016), 이송희일 감독의 중편 '미행'(2016) 등 미개봉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영화제 개막일인 20일 오후 7시에는 박태규 화백의 지



영화 '아이다호'



피에리 마이야르(Thierry Maillard) 트리오

도로 14명의 관객이 직접 그린 손간판 상판식이 진행된다. 이날 오후 7시30분에는 개막작 '스티븐트 빌 주니어'가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광주극장 3층에서 개막식 뒤풀이 '관객의 밤'이 준비되었다.

21일 오후 3시 '슬랙 베이: 바닷가 마을의 비밀 Ma Loute' 상영 후 영화의 집에서 정선석 영화평론가와와의 시네토크가 있을 예정이다.

24일 오후 7시20분에는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A Streetcar Named Desire' 상영 후 광주극장 3층에서 연극무대 이당금과의 시네토크가 이어진다.

영화제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7시30분에는 프랑스 재즈 트리오 'Thierry Maillard'의 피날레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114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첼로 등으로 구성된 현대음악 앙상블 'S201'.

'엄마야 누나야' 안성현 국제현대음악제

19~28일 나주 일원서 다양한 무대

2017 제7회 나주 안성현 국제현대음악제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빛가람혁신도시 전력거래소 다솔홀, 나주 문화예술회관, 안성현음악홀, 영산포 원각사에서 열린다.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고 미래 천년을 시작하는 의미로 올해부터 국제현대음악제로 명칭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나주를 만들고자 이번 음악제를 기획했다.

19일에는 피아노 사중주 연주단체인 '앙상블 컨시어스'의 무대가 나주혁신도시 전력거래소 다솔홀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김고운, 바이올리니스트 정원영, 비올리스트 윤진원, 첼리스트 김강현이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와 김성철의 '부용산',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를 선보인다.

22일에는 강윤숙 재즈 트리오와 독일 아코디언 연주자 필립에라코비치의 무대가 나주 안성현음악홀에서 펼쳐진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베토벤의 '폭풍 3악장', '비창 3악장'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23일, 24일 공연은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23일에는 독일 현대음악 전문앙상블 단체 S201을 초청해 전 자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동시대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24일에는 뮤직바움 피아노 앙상블이 '타기행진곡', '죽음의 무도', '비엔나행진곡', '군대행진곡' 등을 준비했다. 다섯 대의 피아노에서 만들어지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피아노 앙상블 연주회도 마련된다. 특히 피아노 앙상블 연주회에는 초·중·고등학생 10명의 피아노 꿈나무들이 함께하는 무대도 준비되었다.

28일에는 기타와 미디어아트를 함께 볼 수 있는 무대도 준비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명의 기타리스트 서만재, 전장수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이 함께 무대를 준비해 세계의 나주를 꿈꾸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전석 초대. 문의 010-6422-1991.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바흐 대표 음악 'B단조 미사'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20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지휘자 임한귀



소프라노 오은경

광주시립합창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바흐 'B단조 미사(Mass in B minor BWV 232)'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상임지휘자 임한귀의 지휘와 함께 소프라노 오은경, 알토 정수연, 테너 조성환, 베이스 정복기 등의 성악가들이 출연하며 오케스트라단 클레기움 무지킴 서울이 협연한다.

바흐가 작곡한 B단조 미사(Mass in B minor)는 총 4부로 구성됐으며 기존의 글로리아(Gloria·영광송)와 크레도(Credo·사도신경)만 연주하는 프로테스탄트 미사 스

타일에서 더 나아가 미사 통상문 전체가 포함되었다.

바흐는 말년에 자신의 음악을 총 정리한 위대한 3가지 음악을 작곡했는데, 그 중 바로크 미사곡을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미사 B 단조'를 완성했다.

현재 베를린 주립도서관에 보관중인 필사본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단일곡의 약보로만 따지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에 이어 두 번째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가능하다. 문의 062-415-5203.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강정 시인과 함께 책방 낭독회

21일 광주 '검은책방원책방'

광주 동구 서석동에 소재한 동네책방 검은책방원책방에서 여덟 번째 책방 낭독회를 개최한다. 오는 21일(오후 7시)에 '읽다. 더듬다. 놓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낭독회 초청 작가는 강정(사진)시인.



이번 낭독회에서 강정 시인은 독자와 만나 시와 문학 그리고 독서 등 다양한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강정 시인은 '백치의 산수' 등 6권의 시집과 '꿈 마, 씨' 등 4권의 산문집을 냈다. 제4회 시로여는 작품상, 제16회 현대시작품상, 제3회 김현문학패를 수상했다.

30명 선착순 마감(1만원)이며 (Facebook/Twitter 검은책방원책방) 참조. 문의 및 신청 010-7608-989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보조금 횡령 광주시립극단 감독 파면을"

16개 문화단체 촉구

광주지역 16개 문화시민단체들이 보조금 횡령과 파행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에 대해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지역문화예술총연합회(민예총), 문화도시광주시민행동 등 16개 단체는 16일 오후 1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문화예술 보조금을 횡령하고 극단을 파행으로 몰고 간 시립극단 예술감독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주시는 보조금을 공모 절차 없이 집행하고, 수년 간 벌어진 횡령과 보조금 유용에 관해 관리감독

을 소홀히 한 관련 부서장 등을 징계 조치해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특별감사 결과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문화예술 보조금 가운데 5160여 만원을 교부 후 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개인 극단에서 보조금을 공모없이 지원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시립극단 예술감독은 "적은 예산으로 극단을 운영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명예관직직 역시 광주지역 연극의 발전 등을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1987년 6월 항쟁으로 일군 민주주의, CBS 통해 꽃피우다.

CBS 뉴스 부활 30주년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뉴스와 보도 기능을 빼앗긴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 CBS는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인 1987년 6월 항쟁에 힘입어 1987년 10월 19일 뉴스와 보도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CBS 뉴스 부활 30주년 감사 콘서트

2017. 10. 26(목) 오후 6시 30분 / 광화문 북측 광장
양희은, 안치환, 노래를 찾는 사람들, 정태춘·박은옥, 이한철밴드, 노브레인 등
※ 무료 입장